



경북 구미시 장천농협이 농민조합원의 해산결의로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경북 외에도 농업노조와 농민조합원간 참여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조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최초로 조합해산이라는 사태까지 이른 경북지역의 선례는 다른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는 장천농협사태가 심각하게 논의되던 지난 3월 2일 경북지역에서 개최된 협동조합 개혁 토론회를 다녀왔다. 이에, 이번 조합해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경북지역 내에서 논의 되었던 협동조합 개혁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협동조합개혁 토론회

○좌 장 - 황민영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토론자 -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곽동준 달성군 유기농협 이사

이병동 철곡군연합회 회장

이중호 경북도연합회 감사

박용제 경북도연합회 협동조합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수경 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박병용 청도축협 전 조합장

○ 이병동 철곡군연합회 회장

저희 지역 가산농협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산농협에 임직원 보수를 공개하라고 요구 하고, 보수를 인하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합에서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정식으로 조합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가산면 농관련 단체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농협과 협상을 진행 했어요. 600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결의대회를 하였고 거리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산농협 전무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을 농협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장단들도 합세를 했습니다.

○ 팍동준 달성군 유가농협 이사

저희 유가농협은 경제사업을 잘하는 농협중의 하나입니다. 찰벼를 전량수매해서 판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003년 결산 안건 처리 연기를 시작으로 협동조합개혁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판매비, 관리비, 급여명세서 등을 조합으로부터 받아 보았는데, 가장 문제된 것이 인건비. 조합원 홍보활동 진행. 인건비 중 정기상여금 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500% 지급하고, 농협과 협상하면서 조합장 급여를 4천만원선으로 낮추는데 조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급여를 20% 삭감하고, 여기서 발생한 차익분을 신용대출 이자 2% 를 인하하는 환원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합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상호간 의견조율이 어느정도 된 상태입니다.

○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저는 무엇보다도 농협개혁은 개혁의 명확한 방향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90년대 개방 이후 농협개혁의 요구가 거세졌을 때는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자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불만과 상호금융 금리에 대한 인하 요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농협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체적인 비전도 사라졌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맞는 농협이 되어야 하는데, 부실 조합 유지에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합의 시군단위 통폐합과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삭감하고, 이자비용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합이 올바른 판매사업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경북도연합회 협동조합개혁 토론회에 앞서 회원들이 결의문 낭독을 위해 선서하고 있다.

○ 박병용 청도축협 전 조합장

협동조합개혁법안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협동조합개혁법안을 보면 조합장들이 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조합장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합원이 출자한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더 비싼 이자 비용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인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장만 제대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회원조합은 독립법인이기에 충분히 개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용제 경북도연합회 협동조합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저는 협동조합의 급여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익금 중에서 7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전무 연봉이 8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회원조합이 금리 인하에 인식한 것은 임직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출도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경북도연합회 감사

저는 한마디로 이번 도내 회원조합 노조와 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은 개악이라고 봅니다. 경북 201개의 회원조합 중 3분의 1정도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노조 설립 농협 대부분이 적자나 자본잠식 농협입니다. 단체협약 107개 항을 보면 노조가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고 하는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 합병시 노조 동의 없이는 합병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나, 조합 활동을 통상근무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은 분명히 개악입니다.

○ 이수경 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저는 농협개혁의 대안으로 1개 시군 1개 농협 합병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상호금융 금리 인하, 구조조정, 규모화, 전문화, 계통구매사업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시군지부가 위협받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합병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통폐합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법률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아무튼 조합의 합병이 개혁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인건비는 급여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총액 기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민영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많은 분들이 농협개혁에 대한 사례와 견해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현재 노조와 조합원간의 대립구도는 더 나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지, 이것이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극한 대립으로 간다면 조합원에게나 노조에게나 서로 좋지 않은 결과 만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조합이 해산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기 전에 타협점을 찾아서, 정말 농민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바로설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각자 일선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